퇴직연금, 언제 어떻게 받을까?

- 50대 직장인의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인식과 태도 -

2024. 11. 19.

이규성 선임연구원

CONTENTS

Ⅰ. 연구 배경 및 개요

Ⅱ.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연금수령 의향
2. 연금개시 시기
3. 연금수령방식 선택
4. 연금계좌이전 의향

Ⅲ. 시사점

MIRAE ASSET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 요 약 >

◉ 본 연구는 퇴직급여 수급자의 연금수령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임.

◉ 연금수령시기 퇴직자가 의사결정을 해야 할 지점은 크게 4곳(연금수령 의향, 연금개시 시기, 연금수령방법, 계좌이전)으로, 이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음.

① 연금수령 : 응답자 중 58.3%가 퇴직급여(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함.

- 가입자의 보유자산이 많을수록, 부채의존도가 낮을수록,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효과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일수록 연금수령 의향이 높게 나타남.

구분	전부 연금수령 의향	일부 연금수령 의향	일시금 수령 의향
보유자산	12.2억원	10.5억원	9.5억원
부채의존도	15%	16%	41%
절세효과 인지비율	70%	55%	40%

② 연금개시 시기 : 응답자 절반(50.5%)이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때 개시하겠다고 답함.

- 연금개시 : 추가 근로가 어려울 때(50.5%), 주된 직장 퇴직후(34.8%), 55세(14.7%)
- 55세*에 연금을 개시하겠다는 응답자의 부채의존도(62.6%)는 다른 응답자들 보다 3배 가량 높음. (*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연금수령 가능)
  - 추가 근로가 어려울 때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답한 응답자와 주된 직장 퇴직 이후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한 응답자의 부채의존도는 각각 22.4%, 19.5%

③ 연금수령 방식 : 일정기간을 정해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지정 방식'을 가장 선호함.

- 기간지정(31%), 금액지정(22%), 종신연금(19%), 연금수령한도(18%), 수시인출(9%)

④ 연금계좌 이전 : 응답자 중 65.6%는 더 나은 연금수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계좌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답함.

- 연금수령기간에 실적배당상품 편입비중을 높게 가져가겠다고 답한 응답자일수록 연금계좌 이전 의향이 높았음.
  - 계좌이전 의사가 있는 응답자의 연금수령기간 실적배당상품 편입 비중은 58.4%로 계좌이전 의사가 없는 응답자(46.8%)에 비해 높은 편

◉ 퇴직급여의 연금수령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금에 대한 교육과 서비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한편 가입자의 부채의존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함.

Ⅰ. 연구 배경 및 개요

◉ **연금계좌(연금저축,IRP)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최근 이와 같은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임.**

–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연금계좌는 2017년 24.1만 좌에서 2023년 53만 좌로 늘어남.

- 여전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기보다는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계좌가 많지만, 최근 들어 연금 수령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

  • 연금 수령 : 2017년 0.5만좌 → 2023년 5.5만좌 (연평균 50.5% 증가)

  • 일시금 인출 : 2017년 23.6만좌 → 2023년 47.5만좌 (연평균 12.3% 증가)

<도표 1> 퇴직연금 수령 계좌수 현황

자료 : 통계청, 고용노동부 각 연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

◉ **향후 2차 베이비부머가 속한 50대 직장인의 퇴직이 진행되면서, 지금보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2023년 기준 50대 인구는 869만 명으로 전체 인구(5,132만 명)의 16.9%를 차지하고 있음. 50대 인구 중 절반이 넘은 489만 명(56.3%)가 임금근로자이며, 166만 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됨.

- 향후 10년 내에 대다수 50대 임금근로자 대부분이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면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는 계좌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

<도표2> 50대 인구, 임금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현황

(단위: 만명 ,%)

구 분	주민등록인구		임금근로자		퇴직연금가입자	
		비 중		비 중		비 중
50대	869	16.9	489	22.3	166	23.6
전체	5,132	100	2,195	100	706	100

자료 : 통계청 (인구 - 2023년 12월, 임금근로자 - 2023년 8월, 퇴직연금가입자 - 2023년 6월 기준)

◉ 연금수령 요건을 갖춘 계좌가 늘어나면서 연금개시 시기, 연금수령 방법, 연금계좌 이전 등과 관련해 퇴직자들의 다양한 요구와 니즈가 표출될 것으로 전망됨. 이에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수령에 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고자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를 시행함.

<50대 직장인의 퇴직연금 수령에 대한 인식과 태도 조사>

구 분	주 요 내 용
조사 대상	50대 직장인 1,000명 - 서울/수도권, 6개 광역시 및 세종시 거주자 - 100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
조사 기간	2024년 6월 14일 ~ 2024년 8월 6일 (칸타코리아 실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웹/모바일 조사
조사 내용	50대 직장인의 퇴직연금 자산 축적에 대한 실태와 연금수령에 대한 인식 조사 - 가계의 자산, 소득, 등 재무 현황 - 연금축적단계의 경험 - 연금수령에 대한 인식

Ⅱ. 퇴직연금의 연금수령에 대한 인식과 태도

1. 연금수령 의향

◉ **50대 직장인 응답자 중 50.2%는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을 보임. 일시금으로 인출을 희망한 응답자는 35.9%에 불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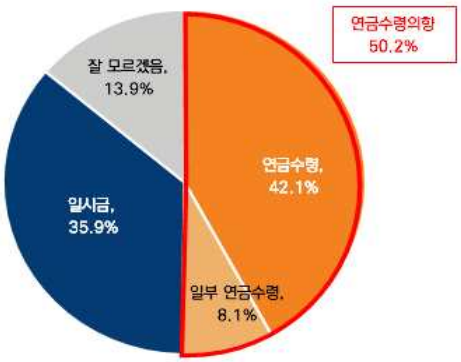
- 응답자 중 42.1%는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으로 받겠다고 했고, 8.1%는 일부를 연금으로 수령할 의향이 있다고 답함. 이는 실제 수급 개시 계좌에서 연금수령 계좌가 차지하는 비율(2023년 10.4%)보다도 높은 수준임.
- 이번 조사가 현재 재직 중인 50대 직장인이 향후 퇴직할 때 연금 수령 의향을 물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은 당분간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판단됨.

◉ **연금 수령 의향을 보인 응답자가 일시금 인출을 희망한 응답자보다 자산은 많았고, 부채의존도는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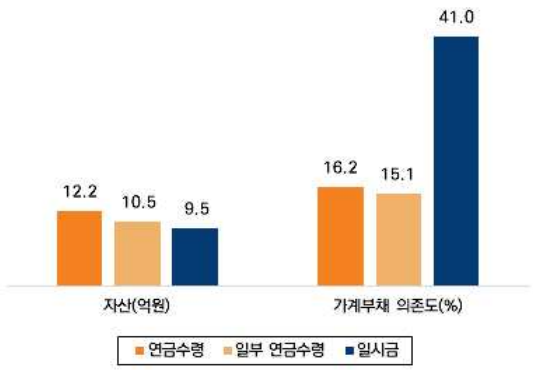
-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한 응답자는 평균 12.2억 원, 일시금 인출 의향을 보인 응답자는 평균 9.5억원의 자산을 보유함.
- 일시금 인출 의향을 보인 응답자의 부채의존도는 41%로 매우 높은 반면, 연금 수령 의향을 보인 응답자의 부채의존도는 약 15~16% 수준에 그침.

<도표 3> 연금인출 형태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연금수령 의향 비중>



<연금인출 형태별 응답자 재정여건>



* 가계 부채의존도는 가계자산 대비 가계부채이며 의미하며 부채성 비율, 레버리지 비율로도 불림.

◉ **퇴직연금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연금수령 의향이 높게 나타남.**

- 퇴직연금에 가입한 응답자 중 약 67%가 연금수령을 선택하겠다고 답한 반면,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는 약 61%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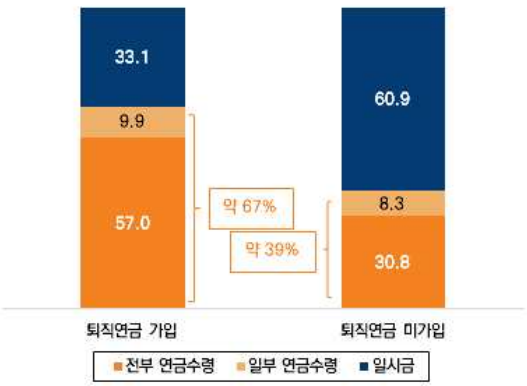
◉ **응답자 중 절반(51.9%)만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데 따른 절세효과를 인지하고 있었고, 이들은 연금수령 의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 받을 수 있는데, 응답자 중 절반만 이 같은 절세 효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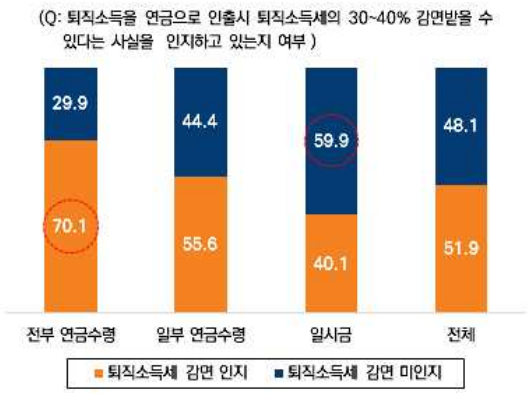
-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으로 받겠다는 응답자 그룹에서는 70.1%가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효과를 인지하고 있었지만, 일시금 인출 의향을 가진 응답자 그룹에서는 59.9%가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음.

<도표 4> 연금수령 형태와 응답자 특성

<퇴직연금 가입유무별 연금수령의향>



<연금수령에 따른 절세효과 인지 여부>



2. 연금개시 시기

◉ **연금 수령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50.5%)은 '추가 근로가 어려워질 때'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답함. 반면 '주된 직장에서 퇴직할 때', '5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각각 34.8%와 14.7%를 차지함.**

-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음. 55세 이전에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55세 이후에 수령한 퇴직급여는 연금계좌에 이체하자마자 연금수령이 가능함.

- 55세 미만 응답자에서는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겠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17.1%)이 전체 50대 응답자 평균(14.7%)보다 높았고, 55세 이상 응답자에서는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대로 연금을 받겠다'고 답한 비율(39%)이 전체 평균(34.8%)보다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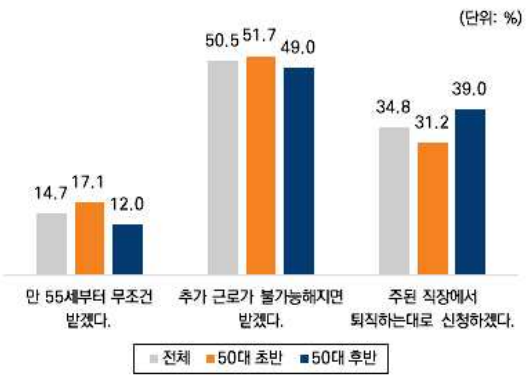
◉ **부채의존도가 높을수록 '55세부터 연금을 받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았고, 자산이 많을수록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대로 연금을 받겠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 '55세가 되면 연금을 받겠다'고 답한 그룹의 부채의존도는 평균 62.6%로, 다른 그룹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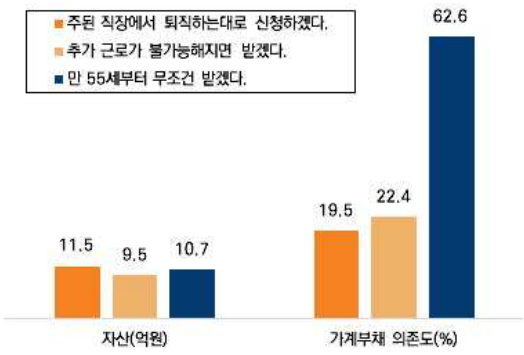
-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대로 연금을 받겠다'는 그룹이 보유한 자산(평균 11.5억원)이 '추가 근로가 불가능해 지면 연금을 받겠다'는 그룹이 보유한 자산(9.5억원)보다 2억이 더 많음.

<도표 5> 연금개시 시기별 응답자 특성

<연금개시 시기별 응답자 비중>



<연금개시 시기별 응답자 재정여건>



3. 연금수령방식 선택

◉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겠다고 답한 근로자(502명)에게 어떤 연금수령방법을 선호하느냐고 물었더니, 기간지정방식(31.1%)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음.**

- 현재 연금계좌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연금수령방식으로는 기간지정방식, 금액지정방식, 연금수령한도, 수시인출방식, 종신연금방식 등이 있음.

- 선호하는 연금수령 방식 비중 : 기간지정방식(31.1%) > 금액지정방식(22.3%) > 종신연금방식(18.7%) > 연금수령한도방식(18.3%) > 수시인출방식(9.2%) 順

<퇴직연금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금수령방식>

◎ 기간지정방식: 가입자가 미리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정기형)이며, 기간을 1개로 설정한 정기형과 기간을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구간형 등이 있음.

◎ 금액지정방식: 일정한 주기에 맞춰 가입자가 지정한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정액형)으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매년 수령할 금액을 증액하는 체증형, 반대로 수령할 금액 감액하는 체감형이 있음.

◎ 연금수령한도: 법에서 정한 연금수령한도만큼 인출하는 방식으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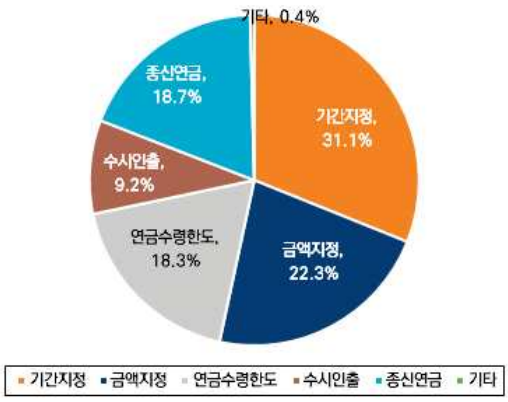
$$\text{연금수령한도} = \frac{\text{연금개시일(개시 이후는 매년 1월 1일) 평가금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 수시인출방식: 가입자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인출하는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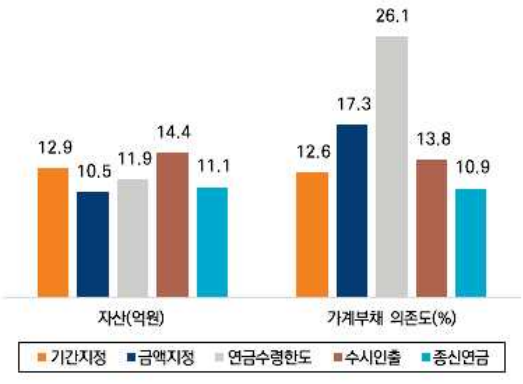
◎ 종신연금방식: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며 연금개시 이후 중도에 변경 및 해지 불가

<도표 6> 연금인출방식 선택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연금지급방식 선택 비중>



<연금지급방식별 응답자 재정여건>



* 가계 부채의존도는 가계가 부채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부채성비율, 레버리지 비율로도 불림.

◉ **응답자의 자산규모와 부채의존도가 연금수령방식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 '수시인출방식'을 선택한 응답자가 보유한 자산이 다른 방식을 택한 응답자보다 많았고, '연금수령한도방식'을 택한 응답자는 부채의존도가 높았음.**

- '수시인출방식'을 선호하는 그룹의 보유자산은 평균 14.4억원으로 '금액지정방식'을 선호하는 그룹(10.5억원)보다 약 4억원이 많았음. 이들은 보유자산을 활용해 기본 노후생활비를 충당하고, 부족분만 퇴직연금으로 충당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응답자 평균 보유 자산 : 수시인출방식(14.4억원), 기간지정방식(12.9억원), 연금수령한도방식(11.9억원), 종신연금방식(11.1억원), 금액지정방식(10.5억원)

- '연금수령한도방식'을 선호하는 그룹의 경우 부채의존도(26.1%)가 '종신연금방식'을 선호하는 그룹(10.9%)보다 2.4배나 높았음. 이들은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해 부채를 조기에 상환하려는 것으로 보임.

  • 부채의존도는 연금수령한도방식(26.1), 금액지정방식(17.3%), 수시인출방식(13.8%), 기간지정방식(12.6%), 종신연금방식(10.9%)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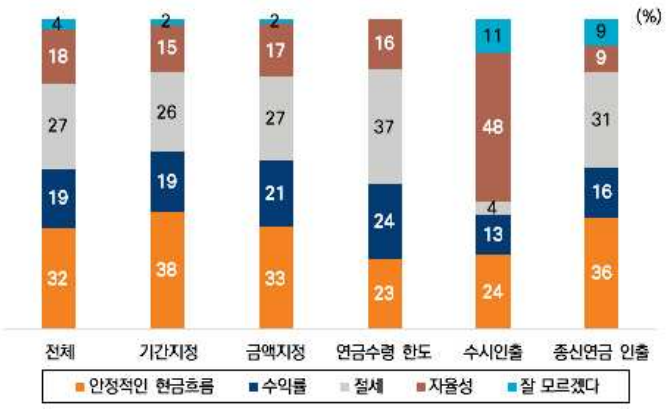
◉ **개인적인 선호(안정적 현금흐름, 절세혜택 등) 또한 연금수령방식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관찰됨.**

- 수시인출방식을 선택한 그룹에서는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때 '자율성'을 우선시한다고 답한 비율이 4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기간지정방식, 종신연금방식, 금액지정방식을 선택한 그룹에서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중요시한다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음.

- 연금수령한도방식을 선택한 그룹의 응답자들은 연금수령방식을 선택할 때 '절세'를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남.

<도표 7> 연금인출방식 선택별 응답자의 선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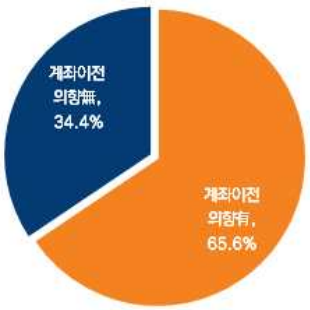


4. 연금계좌 이전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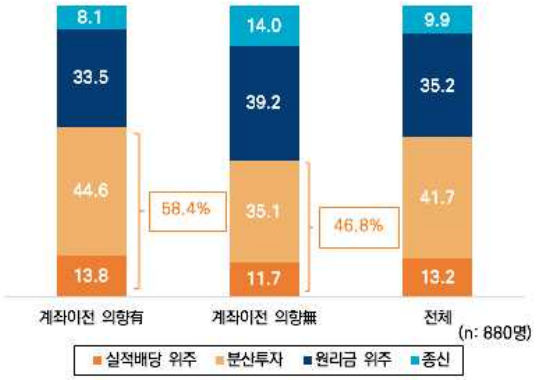
◉ 응답자 3명 중 2명(65.6%)은 더 나은 연금수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있으면 연금계좌를 옮길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도표 8> 연금계좌 이전 의향별 응답자 특성

<응답자의 연금계좌 이전 비중>



<응답자의 연금수령시기 연금운용계획>



◉ 투자에 대해 적극적인 성향을 보일수록 연금계좌를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금수령기간 동안 적립금 운용계획을 묻는 질문에 답한 응답자(880명) 중 41.7%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실적배당상품에 적절하게 자산을 배분하겠다고 답했고, 뒤를 이어 원리금보장상품 위주로 운용하겠다는 응답자도 35.2%로 적지 않았음. 반면 실적배당상품 위주로 자산을 구성하겠다는 응답자(13.2%)와 종신연금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자(9.9%)는 상대적으로 적었음.

- 연금계좌를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그룹에서는 58.4%가 연금수령기간 중에 적립금에 실적배당상품을 포함해서 운용하겠다고 답한 반면, 이전의향이 없는 그룹에서는 적립금을 실적배당상품에 운용하겠다고 밝힌 응답자는 46.8%에 불과함.

<부록> 소득이 연금수령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설문결과에 따르면, 가입자의 소득이 연금수령 및 연금개시시기를 결정하는데 다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다른 요인(자산, 부채의존도, 투자와 연금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이 끼친 영향에 비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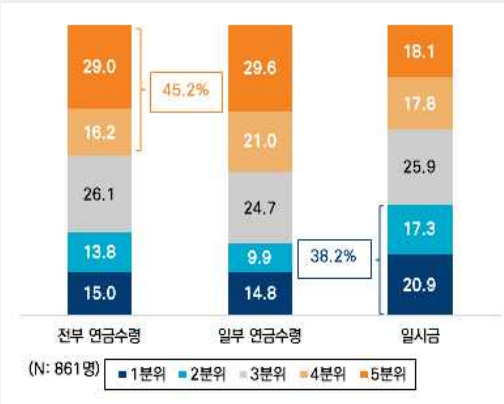
◎ 현재 가계소득 또는 미래 공적연금소득이 많은 응답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퇴직급여를 전부 연금으로 받겠다는 그룹에서는 고소득 분위(4·5분위)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45.2%를 차지한 반면, 일시금 인출 의향을 보인 그룹에서는 저소득 분위(1·2분위)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38.2%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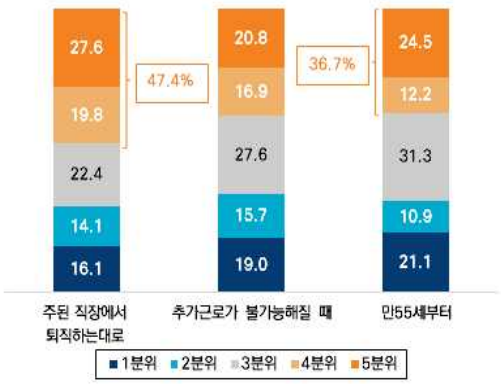
◎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대로 연금을 개시하겠다'고 답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고소득자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주된 직장에서 퇴직하는 대로 연금을 받겠다'는 그룹에서는 응답자 중 47.4%가 고소득 분위(4·5분위)에 속한 반면, '55세부터 연금을 받겠다'는 그룹에서는 고소득 분위에 속한 응답자 비중은 36.7%에 그침.

<연금인출 형태별 응답자의 소득 분위>



<연금개시 시기별 응답자의 소득 분위>



* 현재 가계소득 분위 구분: 1분위 480만원 미만, 2분위 480만원-600만원, 3분위 600만원-730만원, 4분위 730만원-922만원, 5분위 922만원 이상

Ⅲ. 시사점

◉ **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퇴직급여의 연금수령과 관련한 의사결정에는 자산과 부채의존도, 연금과 투자에 대한 관심, 가입자의 선호 등의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자산과 부채의존도]** 응답자의 보유자산과 부채의존도는 연금수령 의향, 연금개시시기, 연금수령방식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연금과 투자에 대한 관심]** 응답자의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연금 이해도는 연금수령 의향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음. 응답자가 투자에 대해 적극적일수록 더 나은 연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계좌를 이전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입자의 선호]** 가입자의 성향은 연금수령방식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퇴직연금 가입자의 재정과 성향에 기초한 맞춤형 퇴직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퇴직연금 교육프로그램과 연금소득세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의 자산 규모와 부채의존에 따라 적합한 연금수령방식을 제안하고 연금가입자의 상황에 맞는 자산배분과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등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야 함.
- 투자에 대한 관심과 연금세제혜택에 대한 이해가 연금수령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투자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現연금소득세율 체계는 일반 가입자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움. 이에 복잡한 연금소득과세 체계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율부과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를 활성화하여 가입자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연금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간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퇴직연금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할 필요없이 계좌이전 할 수 있는 제도(2024.10.31시행)

- 퇴직연금 실물이전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보다 나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므로, 실물이전에 대한 안내와 활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연금사업자는 5가지로 단순화된 연금수령방식에 벗어나 은퇴자의 자산 및 부채를 매칭해주는 연금지급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연금지급서비스를 고도화시켜나갈 필요가 있음.

지금 한국사회와 가계는 큰 변화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유례없는 저성장과 고령화가 도래하면서 자산운용방식에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그에 따른 연금자산관리의 중요성도 커졌습니다.
투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고객의 평안한 노후에 기여한다는 미래에셋그룹의 비전 하에 투자와 연금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는 투자와연금리포트를 통해 투자 및 연금 분야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심도 깊은 분석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리포트 지난 호

... 이전 생략 ...

[56] 은퇴준비를 위한 인출계획 수립과 인출계획서 활용, 2022.9
[57] 3050 직장인의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의 5가지 특징, 2022.11
[58] 대한민국 4050 직장인의 은퇴자신감 서베이, 2022.11
[59] 근로자 속성 및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선택 경향 분석, 2022.11
[60] 고령사회 선진국들의 공적연금 개혁 사례 및 시사점, 2023.2
[61] 미국의 사적연금 보장 강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2023.6
[62] 저축에서 투자로 전환하는 일본 금융정책의 배경과 시사점, 2023.11
[63] 퇴직연금(IRP)에서 제공하는 연금지급방식 현황과 시사점, 2023.12
[64]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노후준비 현황 조사, 2023.12
[65] 2차 베이비부머 직장인의 은퇴 후 소득원과 주거에 대한 인식조사, 2023.12
[66] 투자중개형ISA도입 성과와 과제, 2024.4
[67] 노후자금인 나의 퇴직금은 다 어디로 갔나, 2024.8

투자와연금리포트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홈페이지(investpension.miraeasset.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투자 판단의 참고사항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열람하시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의 의견으로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본 보고서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저작물이므로 사전 동의 없이 무단전재·복제를 금지합니다.
보고서 내용을 인용·전재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